

“출판시장 개방 아직 일러”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금지돼 온 51개 업종 가운데 하나였던 출판업이 시장개방 대상으로 재분류될 조짐이 보이자 출판업계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무부의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부가 지난달 15일 이같은 사실을 출판문화협회로 통보함에 따라 불붙기 시작한 개방시비는, 제한업종이 아닌 금지업종이었던 출판업이 느닷없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더욱 크게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출협측은 “개정안에 출판업이 자유업종으로 구분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도처럼 4월1일부터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출판인들은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정기총회에서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출협 역시 문화부와 재무부로 반대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대표단을 보내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인들이 한결같이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다국적 출판기업이 저질문화를 유입시킬 경우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저해되고 문화적 연속화가 우려된다는 것과, 둘째 경쟁력이 약한 영세한 국내 출판사들의 도산과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업계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다. 우선 시장이 개방되면 문화상륙을 갈망하던 일본의 숭동이 트일 것은 분명할 것이고, 번역출판이 전체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출판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으로 인한 이득도 없진 않다. 선진기술 유입에 따른 현대화 촉진과 표절 복사출판 등의 비정상적 출판물의 감소, 국제출판교류의 활성화 등은 우리 출판계의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우리 출판계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아직껏 시장개방에 대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급작스런 출판시장의 개방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판계가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대책없는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가지 개방을 둘러싼 이번 일을 지켜보며 갖는 아쉬움은 금지업종이란 불안한 안전장치를 과신한 출판인들의 안이함에 있다.

— 최태원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각급 학교 학생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교수나 선배들로부터 이것저것 많은 책을 읽어보라는 충고와 권유를 받게 된다. 장차 전공할 분야와 관련된 필독서를 추천받기도 하고, 지성인이라면 마땅히 읽어야 할 교양서를 권유받기도 한다. 그같은 ‘추천’과 ‘권유’를 체계화한 것이 이른바 추천도서목록, 권장도서목록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에겐 보편적이면서도 공공성을 띤 도서목록이 없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경우를 보면 初學者를 위해 독서의 지침이나 순서를 제시한 글들이 적지 않다. 정통 유교의 입장에서 성현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것에 독서의 주목적을 두었던 李栗谷의 「擊蒙要訣」 「讀書」장은 그 좋은 보기가 된다. 다음에 그 글의 일부를 옮긴다. (이민수 옮김, 을유문고)

배우는 사람은 항상 정성스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물이 빈틈을 타고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치를 궁리하고 착한 것을 밝힌 뒤에야 자기 마땅히 행해야 할 道가 뚜렷하게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진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에 들어 가려면 먼저 이치를 궁리해야 하고, 이 이치를 궁리하려면 먼저 글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聖賢들의 마음

쓴 자취와 착한 일을 본받는 것과 악한 일을 경계한 것들이 모두 이 글 속에 있기 때문이다. 대체 글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잡고 반듯하게 앉아서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오롯하게 갖고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래 읽어 그 행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터득하고 글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방법을 구해본다. 만일 이렇게 않고 입으로만 글을 읽을 뿐 자기 마음으로 이를 본받지 않고 또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을 뿐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먼저 「小學」을 읽어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형을 공경하는 것,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 스승을 높이 받드는 것, 친구를 친하는 도리 등을 일일이 배워 힘써 행한다.

다음으로 「大學」을 읽어 이치를 궁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 등을 일일이 참되게 알아서 이를 실천한다. 다음으로 「論語」를 읽어 어진 것을 구하여 자기 몸을 위하는 것과 근본된 성품을 길러나가는 공을 일일이 정밀하게 생각해서 깊이 그것

을 체험한다. 다음으로 「孟子」를 읽어 의리와 리를 분별하고, 사람의 욕심을 막고, 하늘의 이치에 관한 학설을 일일이 밝게 살펴 이를 확대하여 마음 속에 가득 채워나간다. 다음으로 「中庸」을 읽어 性情의 덕과 옳은 길로 이루어나가는 공과, 만물이 육성되는 묘한 이치를 알아서 여기에 얻는 것이 있게 한다. 다음으로 「詩經」을 읽어서 성정의 간사하고 바른 것과,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는 일들을 일일이 조용히 해석해서 마음 속에 저절로 감동되어 이로써 행동에 옮겨나간다. 다음으로는 「禮經」을 읽어서 하늘의 이치가 규정된 글과 행하는 규칙의 법도를 일일이 강구해서 마음 속에 세운다. 다음으로 「書經」을 읽어 二帝(요순)와 三王(우왕, 탕왕,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원리원칙을 일일이 터득하여 그 근본을 거슬러 생각한다. 다음으로 「易經」을 읽어서 사람의 길흉·존망·진퇴·消長의 기미를 일일이 보아서 궁리하고 연구한다. 다음으로 「春秋」를 읽어서 성인들이 착한 이를 상주고 악한 이를 벌한 것이며, 잘못된 일을 억제하고 잘한 일을 드날려준 것과, 모든 일을 조종하는 그 자세한 말과 깊은 뜻들

을 일일이 정밀하게 연구해서 크게 깨닫는다.

이렇게 五書와 五經을 골고루 자세히 읽어서 그 사리를 깨달아 의리가 날로 더욱 밝아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 뒤에 다시 송나라 선현이 저술한 「近思錄」 「家禮」 「二程全書」 「朱子大全」 「語類」 등의 글과 또 그밖의 다른 性理의 학설도 마땅히 정밀하게 읽어 의리가 항상 내 마음 속에 침투되어 와서 한시간도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 연후에 남는 힘이 있으면 또한 史書를 읽어 고금의 역사에 통하고 일의 변하는 이치에 통달해서 자기의 식견을 길러나야 한다. 그러나 만일 異端으로 잡히고 바르지 못한 글은 잠깐 사이라도 이것을 보아서는 안된다.

대체로 글을 읽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익히 읽어서 그 의리와 뜻을 모두 깨달아 모두 통달하고 의심이 없이 된 연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을 것이고, 여러가지 책을 탐내고 이것저것을 얻으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섭렵해서는 안된다.

출판저널

통권 제101호 / 1992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堧秀
편집부장 — 康鏞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蓮玉 林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收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伯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潤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水
安輝淸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聯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林燮燾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瑛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讓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지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